

# 中風과 豫防治療臨床40年

閔 丙 璣



1. 靈樞經(영추경) (770~221 B.C)에는, 대개 食指나 次指에 不仁感(불인감) 혹은 無力感이 있으면 數月 내지 三年 안에 중풍이 오고, 또는 엄지와 次指에 저린 감 또는 四肢筋肉痙攣感(사지근육경련감)이 오면 역시 數月 내에 中風이 온다. 또 팔다리 저림증, 口眼喎斜(구안괘사), 言語障礙(언어장애) 등이 서서히 오게 되면 머지않아 眞中風(진중풍)이 온다는 징후이다.

## 2. 卒中風(졸중풍)

靈樞經(영추경)에는 처음에는 頭痛, 어지럼증, 귀울임소리, 변비, 興奮(흥분)이 온다. 그러다가 돌연히 졸도한다. 졸도 다음에 人事不省(알아보지못함), 가래끓는 소리, 顔面潮紅(붉은얼굴), 口開涎流(침 흘림), 感覺痲痺(감각마비), 嘔吐(구토), 二便失禁(대소변 못가림) 등의 증상이 있다. 輕症은 수시간 내에 의식을 회복 하지만 昏睡狀態(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死亡하는 수가 十中八九이다.

## 3. 卒中發作時 救急處置(졸중발작시 구급처치)

救急에는 指端井穴(열손가락 끝)과 百會(귀구멍 뒤)에서 피를 찐다. 意識不明(의식불명)에는 人中穴과 三里穴및 勇泉穴에 強刺戟(강자극) 또는 運鍼(운침)을 준다. 본격적인 치료는 발병후(發病後) 약 2~3주가 지나서 마음이 安

定되거든 침뜸으로 左患右治 右患左治한다.

畚岩道人鍼灸要訣風門(사암도인침구요결풍문)에는

畚岩은 風病을 22종으로 하여 놓고 風을 첫째 重病으로 꼽았다.

특히 見證으로 건강한 사람이 별안간 쓰러져 人事를 못차리고 角弓反張(각궁반장 · 몸을 뒤틀이고)하는 것은 十宣穴(左右손끝十穴)에서 三陵鍼(삼능침)으로 피를 빼서 上氣血을 沮止(저지)하라 했다.

靈樞經에는 言語不能(언어불능)이거든 通里穴를 取하고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扶突穴, 舌本(일명 廉泉穴)에 瀉血할것을 권하고 甲乙經에는 地倉, 啞門에 刺針을 권했다.

#### 4. 救急(구급)겸 治療穴(치료혈)

明堂灸經에는 中風八要穴(百會, 曲鬢, 肩井, 曲池, 風市, 陽陵泉, 三里, 懸鐘)外 症狀에 따라 加減 豫防治療 할 수 있다. 工藤(공등)은 말하기를, 完骨에서 瀉血하고 大椎, 風門, 肺俞에 부황으로 瀉血함도 한 方法이라 했다.

#### 5. 半身不隨(반신불수)

뇌출혈(眞中風)은 病巢(병소)의 반대측 半片(반편) 등의 運動障礙(운동장애)를 일으키며 처음에는 弛緩(이완)되다가 수일 후에는 痙攣性(경련성)으로 되고 또 얼마 후에는 위축(위축)이 온다. 發病後 三個月 안에 回復되는 것은 쉬우나 一年 以上の 患者는 重症으로 쉽지 않다 하였다.

#### [參考. 1]

醫博·長濱(의박·장빈)은 半身不隨 豫防治療에 中風八要穴과 合谷, 三陰交, 風池, 中脘, 丘墟, 外關을 추가 推獎(추장)하였으니 病證에 따라 加減活用 하라 했다.

[參考. 2]

日本人 二階堂平四郎씨는 半身不隨治療의 例에서 환자 98명중 全治 19명, 略治 21명, 有效 31명, 不變 22명, 惡化 4명이란 成績을 보고하였다. (第3回 日本鍼灸治療學會 論文集에서)

6. 中風의 豫防 1法

腦出血(뇌출혈)의 發病은 그 誘因(유인)이 되는 나쁜 조건과 病的體質(병적체질)을 개선 시킴으로서 예방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卒中風의 예방을 목적으로 鍼이나 뜸으로 處置(처치)하여야 한다.

7. 中風의 豫防 2法

鍼이나 뜸으로 天膠穴(肩井穴인접혈), 肩井, 身柱, 肝俞, 腎俞, 曲池, 三里, 懸鍾, 百會穴 等に 매일 일주일 以上씩 또는 2~3일마다 정기적으로 침뜸을 지속한다. 뜸의 크기는 쌀반톨 크기나. 쌀한톨 크기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8. 中風의 豫防 3法

資生經에는 무릎 불시에 정갱이와 食指및 次指가 저리고 아프다가 한참 지나서 풀리는 것은 中風이 될 징조이니 三里穴, 絶骨, 申脈, 百會, 曲鬢, 肩髃, 曲池, 風市, 合谷, 環跳에 뜸7장씩 한다. 만일 이 방법을 믿지않아 갑자기 猝死(졸사)하면 風이 臟入(장입)한 것이다. 風에 병든 자가 몰라서는 앓된다고 했다.

9. 東醫寶鑑 風門 鍼灸編은

肘後備急方(300.A.D)에는 中風을 다스리는 데는 續命湯(속명탕)의 類만한 것이 없으나 그것은 病을 扶持(부지)해 나갈 뿐이요. 만약 全功을 거두려면 火艾(쑥뜸질)가 필요할고 것이다. 中風이란 脈道(혈액순환)가 不利하고 血氣가 막히어서 나는 것이니 쑥뜸질을 하면 脈道(피순환)와 血氣가 잘 통하여 全

功(원하는바)을 거둔다 했다.

10. 萬病回春에 羌活愈風湯은

愈風湯(유풍탕)이란 風이 臟腑(장부)에 的中된데 장기간 調理(조리)하면 大風이 다 除去되고 榮衛(영위)가 스스로 和하게 하는 것이다.

愈風湯方은 蒼朮, 石膏, 生地黄 各1.5g, 羌活, 防風, 當歸, 蔓荊子, 川芎, 細辛, 黃耆, 枳殼, 人蔘, 麻黃, 白芷, 甘菊, 薄荷, 枸杞子, 柴胡, 知母, 地骨皮, 杜仲, 獨活, 秦艽, 黃芩, 芍藥, 甘草 各 2g. 肉桂 1g를 1貼量으로 하여 생강 3쪽 으로 水煎하여 朝夕으로 服用한다.

易老(이노)에도 愈風湯이란 것은 肝腎이 虛한 것과 筋骨이 弱한 것과 言語의 어려움과 精神昏冒(정신훈모)와 瘦瘠(수척)하고 혹은 살찌서 不隨(불수)한 것과 健忘(건망)하는 것들은 모두 精이 부족해서이니 安心과 養神과 陰陽을 調理(조리)하여 偏勝(편승 : 기울지 않게)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 했다.

筆者 \*\* 中風이란 예로부터 病中長이라 했다. 병중에서 제일 難治(난치)란 뜻이다.

또 중풍으로 위기를 넘겼다 해도 半身不隨(반신불수)를 면하지 못하면 回復(회복)을 위해 治療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現代醫學에서도 救急(구급)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半身不隨가 된 후에는 特效약은 없는것 인지 物理的인 運動療法과 歲月療法(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짐)들에 불과 한것 같다.

그러나 우리 傳統韓方에는 예로부터 草根木皮와 침뜸요법으로 有名한 處方들이 많이 있다. 나는 지금도 上記處方들로 半身不隨나 各種 神經系疾患들을 보람있게 功績(공적)을 優秀(우수)히 보이는 貴中한 處方으로 하고 있다.

(신진한약방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78-6번지 ☎ 043)232-7450)